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전환충격과 무례함 중심으로

박혜련<sup>1</sup> · 전해정<sup>2</sup> · 반민경<sup>3</sup>

<sup>1</sup>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 <sup>2</sup>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3</sup>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

## The Effects of Transitional Shock and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Park, Hye-Ryeon<sup>1</sup> · Jun, HyeJung<sup>2</sup> · Ban, Min Kyung<sup>3</sup>

<sup>1</sup>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Busan, Republic of Korea; <sup>3</sup>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ransitional shock, inciv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A total of 143 nursing students completed transitional shock, inciv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nursing professionalism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ender ( $\beta=.20, p=.001$ ), major satisfaction ( $\beta=.44, p=.007$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 $\beta=.45, p<.001$ ), transitional shock ( $\beta=-.20, p=.012$ ), and incivility experienced ( $\beta=-.18, p=.021$ ) among nursing student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n for reducing individual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the transitional shock of nursing students. It ultimately may increase nursing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ism. In addition, a strategy is needed to reduce incivility among nursing students by creating positive educational environment in clinical practic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training institutions, and to strengthen desirable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Professional practice gaps, Incivility,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지닌 가치관에 직업관을 결합한 것으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간호에 긍정적인 신념과 긍지를 가지게 한다<sup>1)</sup>. 이에 간호사가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되므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중요하다<sup>2)</sup>.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가치관이나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해지기 전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혼란을 야기하고<sup>3)</sup> 신규간호사가 되어서는 자신이 기대한 것들이 임상현장에서 충족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충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결국 현실충격을 해소하지 못한 신규간호사는 전문직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sup>2,4)</sup>. 이

주요어: 전환충격, 무례함, 전문직관, 간호대학생

IRB 승인기관 및 번호: 동아대학교(2-1040709-AB-N-01-202002-HR-004-02)

Corresponding author: Jun, HyeJung (<https://orcid.org/0000-0001-7932-219X>)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506, Jinnam-ro, Busanjin-gu, Busan 47228, Republic of Korea

Tel: +82-51-850-3144 Fax: +82-51-850-3061 E-mail: junhj70@hanmail.net

Received: 30 December 2020 Revised: 18 April 2021 Accepted: 20 April 2021

에 확고한 목표와 이념이 없는 간호활동은 참다운 간호현상의 부재를 초래하므로 미래의 간호를 이끌어 나갈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형성이 중요하다[2].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친숙한 과정에서 벗어나 실습교육으로 전환될 때 임상실습이라는 전환 시기를 맞이한다[5]. 전환 시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전환충격으로 기대했던 것과 실제 업무가 다를 때 경험하는 불안, 의구심, 혼란, 혼동, 상실 등이 있다[6]. 간호대학생은 실습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미숙한 역할 수행, 대인관계 갈등, 이론과 실제 실습과의 차이, 환자와의 갈등[7-9]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무력감[7], 두려움, 불안, 긴장감 등을 호소한다[8]. 또한 자아존중감[2,9], 전공만족도[7], 실습만족도[7,8]가 저하되어 간호사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2,9]. 즉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이 임상실습의 부적응을 유발하여 간호에 대한 태도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7].

또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이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며[10] 그 과정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11]. 임상실습 교육이 대부분 간호사 업무에 대한 역할 학습에 의존하므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9,11]. 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사의 무시나 무관심, 귀찮아하는 표정, 불쾌한 표정 등과 같은 무례한 행동을 경험하기도 한다[9]. 이렇게 임상실습 중 간호사들의 태도나 행동이 긍정적이지 못할 경우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바람직한 역할모델을 정립시키기 어려워지며 이는 간호전문직관 형성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7,12].

국내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대로 된 측정도구가 없어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정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전환충격과 무례함은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가중시켜 간호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7,9,12]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현실충격을 극복하고 간호사로서의 역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전환충격과 무례함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에 경험한 전환충격과 무례함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

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무례함, 간호전문직관 수준을 확인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확인한다.
- 넷째,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무례함,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다섯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무례함,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B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
- 둘째, 상급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임상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
- 셋째,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넷째, 설문지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응답이 가능한 자
- 다섯째,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밝히고 동의한 자

본 연구의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과거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 받았거나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 둘째, 최근 6개월 이내 항불안제, 항경련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자

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1.0 프로그램[13]을 이용하여 표본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효과크기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Hwang과 Shin [14]의 연구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11개를 투입하였을 때 최소 필요한 표본수가 123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 20.0%를 고려하여 총 148명의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5부를 제외하고 최종 14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전환충격

전환충격은 Kim, Yeo와 Yi [15]가 신규간호사의 전환충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18문항의 도구를 Kim과 Shin [5]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7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저자와 수정한 저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도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간호대학생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된 1문항을 제외한 총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발 당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므로 수정·보완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내용 타당도 계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CVI는 1.0이었다. 하위영역은 이론과 실제의 충돌 3문항, 업무의 압도 3문항, 사회적 지지의 상실 2문항, 동료관계의 위축 3문항, 간호전문직관의 혼란 4문항, 개인생활과 일과의 부조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대상자의 반응을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전환충격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5]이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Kim과 Shin [5]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 2) 무례함

무례함은 Anthony와 Yastik [16]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간호사로부터 경험하는 무례함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Th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UBCNE)를 Jo와 Oh [17]가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저자와 수정한 저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배타(5문항), 멸시(5문항), 거절(3문항)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었다' 1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에 간호사로부터 경험한 무례함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hony와 Yastik [16]가 도구를 개발하였을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였고 Jo와 Oh [17]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였다.

####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Kwon과 Ahn [18]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Han, Kim과 Yun [19]이 간호대학생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저자에게는

우편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수정한 저자에게는 전자우편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18문항의 Likert 5점 척도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18]이 도구를 개발하였을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Han 등[19]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였다.

###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B광역시에 위치한 8곳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협조를 승인한 대학의 간호학과 사무실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에도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이후 모집공고문을 보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서면 동의서 또는 온라인 동의서를 받은 뒤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라도 중도 철회 가능함과 철회 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대면으로 작성한 간호대학생은 25명,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한 간호대학생은 123명으로 총 148명이었다.

###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SPSS 24.0 for Window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환충격, 무례함 정도는 기술 통계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전환충격, 무례함,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의 연구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2-1040709-AB-N-01-202002-HR-004-02). 설문지 작성 전 연구자가 연구 설명문으로 참여자의 익명성, 연구의 목적, 절차, 자료의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이해한 대상자에게 서명을 받았다.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종료 후 자료는 3년간 보관하며 이후 관련 서류는 분쇄 후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준수하였고 설문이 완료된 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3,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135명(94.4%), 남성이 8명(5.6%)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23.30±1.70세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다'가 78명(54.5%), '보통이다'가 55명(38.5%), '나쁘다'가 10명(7.0%)이었다. 대인관계는 '좋다'가 114명(79.7%), '보통이다'가 27명(18.9%), '나쁘다'가 2명(1.4%)이었다.

전공선택 동기는 '취업률을 고려한 경우'가 62명(43.3%), '취미나 적성을 고려한 경우'가 39명(27.3%),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가 21명(14.7%), 기타가 21명(14.7%)이었다. 성적은 평균 학점이 3.0에서 3.9점이 83명(58.0%)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Table 1.** Characteristic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Participant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or F	p
Gender	Female	135 (94.4)	3.93±0.50	2.00	.048
	Male	8 (5.6)	3.57±0.41		
Age(yr)		23.30±1.70			
Perceived health status	Bad	10 (7.0)	3.94±0.64	2.35	.099
	Moderate	55 (38.5)	3.80±0.48		
	Good	78 (54.5)	3.99±0.50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 <sup>a</sup>	2 (1.4)	2.86±0.27	17.26	<.001 (a<b<c) <sup>†</sup>
	Moderate <sup>b</sup>	27 (18.9)	3.54±0.37		
	Good <sup>c</sup>	114 (79.7)	4.02±0.48		
Motive for major selection	Job prospect <sup>a</sup>	62 (43.3)	3.78±0.56	4.58	.004 (a,b,c<d) <sup>†</sup>
	Advice of parents or teachers <sup>b</sup>	21 (14.7)	3.86±0.43		
	Etc <sup>c</sup>	21 (14.7)	3.91±0.38		
	Aptitude or interest <sup>d</sup>	39 (27.3)	4.15±0.45		
Grade	≤2.9	19 (13.3)	3.89±0.38	0.11	.897
	3.0-3.9	83 (58.0)	3.93±0.54		
	≥4.0	41 (28.7)	3.89±0.49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sup>a</sup>	4 (2.8)	3.01±0.25	19.25	<.001 (a<b<c) <sup>†</sup>
	Moderate <sup>b</sup>	29 (20.3)	3.59±0.41		
	Satisfied <sup>c</sup>	110 (76.9)	4.03±0.47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Dissatisfied <sup>a</sup>	20 (14.0)	3.36±0.41	39.94	<.001 (a<b<c) <sup>†</sup>
	Moderate <sup>b</sup>	43 (30.1)	3.70±0.30		
	Satisfied <sup>c</sup>	80 (55.9)	4.17±0.45		
The most difficult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practice	Nurse	73 (51.0)	3.74±0.50	6.66	.061
	Patient and caregiver	35 (24.5)	4.10±0.49		
	Peer	23 (16.1)	4.06±0.47		
	Etc	12 (8.4)	4.14±0.31		

M=Mean; SD=Standard deviation; <sup>†</sup>Scheffé test

110명(76.9%), ‘보통’이 29명(20.3%), ‘불만족’이 4명(2.8%) 순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80명(55.9%), ‘보통’이 43명(30.1), ‘불만족’이 20명(14.0%)이었다. 임상실습 시 가장 어려운 대인관계는 ‘일반간호사가 73명(51.0%), ‘환자 및 보호자가 35명(24.5%), ‘실습 동료’가 23명(16.1%), ‘의사 및 의료 기사 등을 포함하는 기타’가 12명(8.4%) 순이었다.

**2. 대상자의 전환충격, 무례함,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전환충격, 무례함,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전환충격은 4점 만점에 평균 2.18±0.04점이었고, 무례함은 5점 만점에 평균 1.68±0.05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91±0.04점, 하위영역에서는 간호의 독자성이 4.51±0.0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의 전문성 4.26±0.05점, 간호 역할 4.17±0.06점, 전문직 자아개념 4.02±0.04점, 사회적 인식 3.24±0.07점 순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t=2.00, p=.048$ ), 대인관계( $F=17.26, p<.001$ ), 전공선택 동기( $F=4.58, p=.004$ ), 전공만족도( $F=19.25, p<.001$ ), 임상실습 만족도( $F=39.94,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3.93±0.50점)이 남학생(3.57±0.41점)보다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인관계,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는 나쁨이나 보통인 경우보다 좋다는 경우가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았고, 전공선택 동기는 취미나 적성을 고려한 경우가 취업률이나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 기타의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불만족이나 보통의 경우보다 만족한다는 경우가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았다.

**4. 대상자의 전환충격, 무례함,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환충격, 무례함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전환충격( $r=-.54, p<.001$ ), 무례함( $r=-.52, p<.001$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환충격과 무례함( $r=.59, p<.001$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에 다중 공선성을 분석하여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3~0.95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 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5~7.58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잔차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19로 나타나 자기 상관 없이 회귀분석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ransition Shock, Inciv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43)

Variables	M±SD	Range of score	
		Min	Max
Transition shock	2.18±0.04	1.06	3.59
Incivility	1.68±0.05	1.00	3.31
Nursing professionalism	3.91±0.04	2.67	4.94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02±0.04	2.67	5.00
Social awareness	3.24±0.07	1.00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26±0.05	2.67	5.00
Roles of nursing service	4.17±0.06	2.50	5.00
Originality of nursing	4.51±0.06	1.00	5.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Table 3.** Correlations among Transition Shock, Inciv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43)

Variables	Transition shock r (p)	Incivility r (p)	Nursing professionalism r (p)
Transition shock	1		
Incivility	.59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54 (<.001)	-.52 (<.001)	1

Table 4.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N=143)

Factors(ref)	B	SE	$\beta$	t	p
(constant)	3.45	.27		11.65	<.001
Gender (ref.=male)	0.43	.13	.20	3.25	.001
Major satisfaction (good) (ref.=dissatisfied)	0.53	.19	.44	2.74	.007
Major satisfaction (moderate) (ref.=dissatisfied)	0.35	.19	.28	1.82	.07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good) (ref.=dissatisfied)	0.45	.11	.45	4.29	<.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oderate) (ref.=dissatisfied)	0.17	.10	.16	1.70	.092
Transition shock	-0.21	.08	-.20	-2.56	.012
Incivility	-0.16	.07	-.18	-2.34	.021

$R^2=.54$ , adjusted  $R^2=.52$ ,  $F=22.62$  ( $p<.001$ )

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beta$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ref=Reference variable

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차이가 있었던 성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더미처리하여 전환충격과 무례함을 함께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성별( $\beta=.20$ ,  $p=.001$ ), 전공만족도( $\beta=.44$ ,  $p=.007$ ), 임상실습 만족도( $\beta=.45$ ,  $p<.001$ ), 전환충격( $\beta=-.20$ ,  $p=.012$ ), 무례함( $\beta=-.18$ ,  $p=.021$ )이 간호전문직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 성별, 전환충격, 무례함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간호전문직관의 약 52.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겪는 전환충격과 무례함을 설명하고 이들 변수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91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한 Park [20]의 3.48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Park [20]의 연구는 대상자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분포한 반면 본 연구 대상자는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인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므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과 비교하여 4학년 학생은 간호전문성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 역할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판단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 중 간호의 독자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인식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Ham, Kim, Cho

와 Lim [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이 간호의 독자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은 간호실무, 간호사의 태도, 간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구체화하고 간호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므로[22]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간호 패러다임의 사회적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은 변화된 패러다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간호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여 간호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Ham 등[21]의 연구와 일치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학 교육에서의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학습성과 중 하나로서 전공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임상실습 환경에서 이론과 실무를 배우면서 전문직관을 확립하게 된다[23]. 임상실습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은 심동적 능력과 지식, 태도를 배우며, 이러한 교육환경 안에서 여러 요소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학습을 하게 되며, 긍정적인 임상실습교육 환경은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제공하고 있다[23]. 따라서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임상현장의 실무를 경험하고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간호술을 습득하게 되며, 대상자의 간호 요구에 따른 간호과정, 중재 및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학습하게 된다[24]. 임상실습 시 간호사와 임상현장지도자가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간호술이나 태도는 임상실습 기간에 간호학생이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실습경험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 임상실습교육 환경은 학생들이 직접적인 술기 실습보다는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

시간이 많아 간호 실무능력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실습환경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불만족을 초래하고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은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학과 임상현장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실습환경 마련과 실습지도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학교에서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임상실습 대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Hong [25]의 연구와 일치한다.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태도와 신념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을 방해한다[26].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자질을 갖추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여 임상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별이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Jeon과 Han [2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표본수를 늘려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에 대한 재확인 필요하다.

대상자의 전환충격은 4점 척도에서 2.18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을 측정된 Kim과 Shin [5]의 2.44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15]의 연구에서는 전환충격이 2.7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보다 간호사의 전환충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이 주로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하는 것이어서[24,28] 다양한 간호 술기를 실제로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실습업무나 책임이 간호사에 비해 제한적이라 간호사보다 전환충격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규 간호사의 전환충격은 1년 정도 지속되므로[29]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은 임상실습 전반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상실무와 간호교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무례함은 5점 척도에서 1.68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무례함을 측정된 Jo와 Oh [17]의 3.03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무례함의 정도가 낮게 나온 것은 연구 대

상자가 임상실습에서 무례함의 경험이 적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무례함이 대상자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례함은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무례함의 개념과 경험한 상황에 다르게 인지할 수 있고, 간호대학생이 무례함을 간호사가 되면 당연히 직면해야 하는 문제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무례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무례함에 대한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전환충격, 무례함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가 전환충격과 무례함 정도가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환충격이 적을수록 무례함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 중 실습 현장에서 경험하는 간호사의 무례함은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사를 바라는 역할모델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12] 간호전문직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서는 임상실습 교육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지도,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등을 포함한 임상실습 지도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전환충격, 무례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간호대학생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설명력은 52.0%로 나타났다. 이 중 임상실습만족도가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전공만족도로 불만족보다 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환충격과 무례함은 간호전문직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환충격을 완화시키고 무례함과 같은 부정적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B광역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결과해석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살펴보고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환충격, 무례함과 함께 성별,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전무하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이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위해 전환충격 및 무례함을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임상실습 교육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에 경험한 전환충격과 무례함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환충격, 무례함, 성별, 전공만족도, 임상 실습만족도이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환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상환경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무례함을 줄이기 위해 간호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간호를 이끌어 나갈 간호대학생이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간호대학생이 전환충격과 무례함을 겪지 않도록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임상실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임상현장과 간호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임상실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

## ORCID

Park, Hye-Ryeon <https://orcid.org/0000-0003-4763-9517>  
 Jun, HyeJung <https://orcid.org/0000-0001-7932-219X>  
 Ban, Min Kyung <https://orcid.org/0000-0002-1368-3424>

## 참고문헌

- Jeong MS, Park GO, Go MH, Kim DH, Kim SM, Kim EK, et al. Introduction to Nursing. 3th ed. Seoul: Hyunmoonsa; 2018. p.49-59.
- Kwon YM, Yeun EJ.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7;13(3): 285-92.
- Park MY, Kim SY.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0;6(1):23-35.
- Han SS, Sohn IS, Kim NE. New nurse turnover intention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9;39(6):878-87. <https://doi.org/10.4040/jkan.2009.39.6.878>
- Kim SY, Shin Y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ransition shock scale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1):17-26.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17>
- Duchsche JE. Transition shock: the initial stage of role adaptation for newly graduated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9;65(5):1103-13.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8.04898.x>
- Hong SS, Park MJ.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369-77. <https://doi.org/10.5392/JKCA.2014.14.12.369>
-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205-13.
-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 Brammer JD. RN as gatekeeper: student understanding of the RN buddy role i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06;6(6):389-96. <https://doi.org/10.1016/j.nepr.2006.07.013>
- Kang JY, Jeong YJ, Kong KR. Threats to identity: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student nurses experience of incivility during clinical pla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8;48(1):85-95. <https://doi.org/10.4040/jkan.2018.48.1.85>
- Hong YK, Kim YH, Son HM. Effect of nurses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on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22(4):323-31.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4.323>
- Erdfelder F, Lang B.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39(2):175-91.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Hwang EH, Shin SJ.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7;31(1): 97-108. <https://doi.org/10.5932/JKPHN.2017.31.1.97>
- Kim EY, Yeo JH, Yi KI. Development of the transition shock scale for newly graduat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7;47(5):589-99. <https://doi.org/10.4040/jkan.2017.47.5.589>
- Anthony M, Yastik J.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incivility in clinical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11;50(3):140-4. <https://doi.org/10.3928/01484834-20110131-04>
- Jo SO, Oh JA.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a tool to measur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4):537-48.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4.537>
-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00.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73-9.
- Park HJ.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227-36.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27>
- Ham YS, Kim HS, Cho IS, Lim JY.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536-44.



22. Karaoz S. Change i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nursing during their education: the role of the introduction to nursing course in this change. *Nurse Education Today*. 2004;24(2):128-35. <https://doi.org/10.1016/j.nedt.2003.10.010>
23. Keeling J, Templeman J. An exploratory study: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3;13(1):18-22. <https://doi.org/10.1016/j.nepr.2012.05.008>
24. Hyoung HK, Ju YS, Im SI. A concept mapping study on clinical stress for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20(4):394-404. <https://doi.org/10.11111/jkana.2014.20.4.394>
25. Hong JA.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incivility perceive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5):167-83.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5.167>
26. David B, Elizabeth W, Rachel R.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2007;12(1):46-51.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27. Jeon MK, Han MY.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civility,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19):949-64.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9.949>
28. Song JH, Kim MW.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2):251-64.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251>
29. Shin KM, Kim EY. A concept analysis on reality shock in newly graduated nurses using the hybrid model.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7;26(1):19-29. <https://doi.org/10.5807/kjohn.2017.26.1.19>